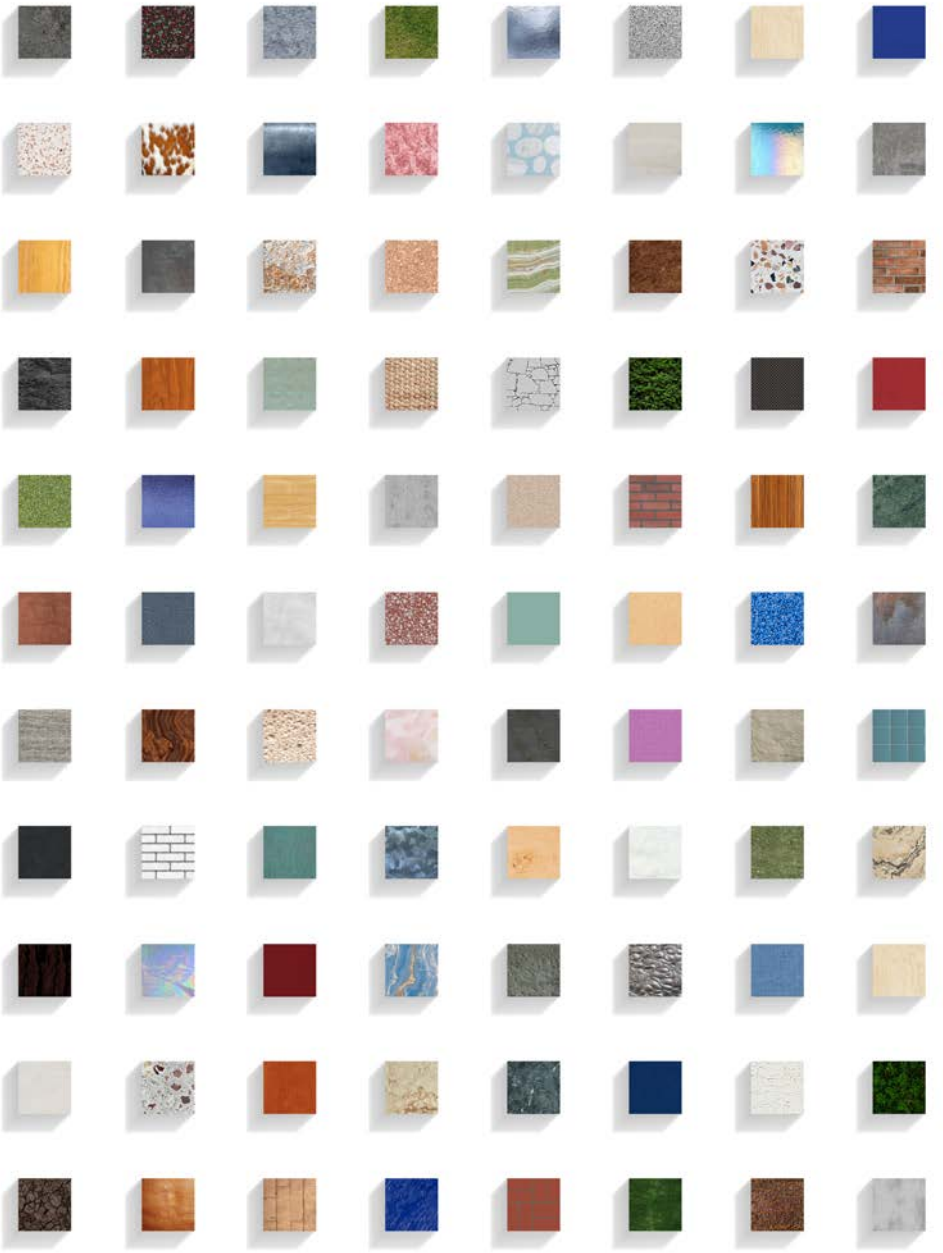
서 울 도 시 건 축 전 시 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9

Seoul Hall of Urbanism & Architecture
119, Sejong-daero, Jung-gu, Seoul



# MATERIALISM

26.11.07 — 27.02.28

BIG

Bjarke Ingels Group (BIG)는 코펜하겐에 본사를 둔 건축 및 디자인 스튜디오로, 바르셀로나, 런던, 뉴욕, 상하이, 로스앤젤레스, 취리히에 팀을 두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창의성과 실용적인 지속가능성을 결합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BIG는 건축을 가속화되는 세계의 복잡성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룹니다. 고전적 이상을 따르기보다는 UN의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디자인을 위한 새로운 다차원적 프레임워크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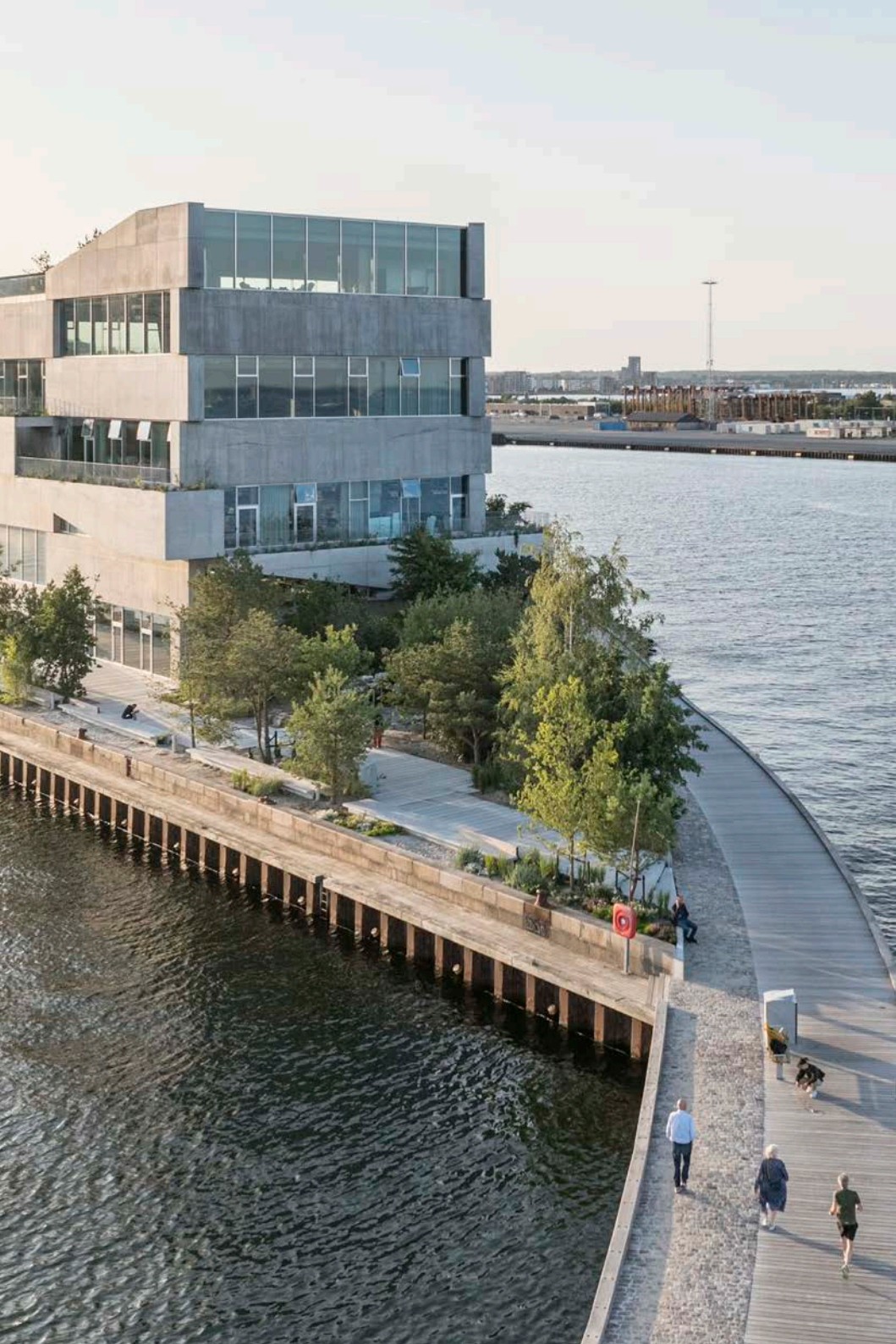
협업은 BIG의 접근 방식의 핵심입니다. BIG는 건축가, 디자이너, 도시계획가, 조경 전문가, 인테리어 및 제품 디자이너, 연구자, 발명가를 한데 모아, 우리가 직면한 도전만큼이나 역동적이고 상호 연결된 해법을 공동으로 만들어냅니다. BIG에서 미래는 개인의 천재성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 지성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 다양한 관점을 결합해 모든 규모에서 영향력을 갖는 디자인을 실현합니다.

한 명의 창립자에서 출발해 700명 이상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글로벌 팀으로 성장한 BIG는 현재 조경, 건축, 인테리어, 도시계획, 제품 디자인을 아우르는 다학제적 스튜디오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통합적 모델은 분야와 국경을 넘나들며 작업할 수 있게 하고, 어느 한 개인도 단독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창의적 통찰을 이끌어냅니다. 각각의 기여는 공동의 한 걸음이 되며 함께 더 상상력 넘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Bjarke Ingels Group (BIG) is an architecture and design practice headquartered in Copenhagen, with teams based in Barcelona, London, New York, Shanghai, Los Angeles, and Zurich. Known for merging radical creativity with pragmatic sustainability, BIG approaches architecture as a means to address the accelerating complexity of the world. Rather than adhering to classical ideals, BIG embraces the UN's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s a new, multidimensional framework for design.

Collaboration is central to BIG's approach. The firm brings together architects, designers, urbanists, landscape professionals, interior and product designers, researchers, and inventors to co-create solutions that are as dynamic and interconnected as the challenges we face. At BIG, the future is shaped not by individual genius but by collective intelligence — combining diverse perspectives to design for impact at every scale.

From a single founder to a global team of over 700 professionals, BIG has grown into a multidisciplinary studio working across Landscape, Architecture, Planning, and Products. This integrated model allows BIG to operate across disciplines and borders, unlocking creative insights that no one could achieve alone. Each contribution becomes a shared step — and together, toward a more imaginative and sustainable future.



건축이 단순한 구조물을 넘어, 전통과 혁신, 그리고 자연 사이의 대화로 확장되는 세계로 들어오십시오.

이곳에서는 시대를 초월한 기법과 첨단 기술이 만나, 영속성과 유연성의 균형을 이루는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각 요소는 문화적 유산, 환경에 대한 책임, 그리고 창의적 재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본 전시는 형태와 기능, 그리고 재료성이 어떻게 우리의 건축 환경을 형성하는지,
그 섬세한 상호작용을 발견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디자인이 끊임없이 진화하는 풍경 속을 따라 여정을 이어가며,
모든 디테일이 기존의 기대를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드러내는 순간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비야케 잉겔스 그룹 (BIG)



© Yongwon Jo

Step into a world where architecture transcends mere construction to become a dialogue between tradition, innovation, and nature.

Here, timeless techniques meet cutting-edge technology, crafting spaces that balance permanence and adaptability. Each element tells a story of cultural heritage, environmental stewardship, and creative reinvention.

This exhibition invites you to uncover the subtle interplay of form, function, and materiality that shapes our built environment.

Embark on a journey through evolving landscapes of design, where every detail challenges expectations and reveals new possibilities for the future of architecture.

Bjarke Ingels Group (BIG)



# 돌

돌—건축의 요람입니다. 괴베클리 테페와 스톤헨지와 같은 선사 시대의 기념비에서부터 페트라, 아크로폴리스,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이르는 상징적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돌은 영속성과 역사적 의미를 체현해왔습니다. 그리스 신전이 목구조 기법을 석재로 전환하여 구현했던 것처럼, 돌은 처음에는 구조적 재료로 사용되었고, 이후 미스 반 데어 로에의 정제된 석재 마감에서 보이듯 장식적 요소로 확장되었습니다. 동시대 건축에서는 돌의 다층적 가능성이 더욱 탐구되고 있습니다.

**BIG의 코펜하겐 본사**에서는 돌의 내구성과 물질적 중량감이 산업적 맥락 속에서 건물을 단단히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NASA의 달 거주지 프로젝트**에서는 달의 표토인 레골리스—일명 달의 먼지—를 활용하여 극한 환경에서의 안정성과 자립 가능성을 제시하며, 석재의 미래적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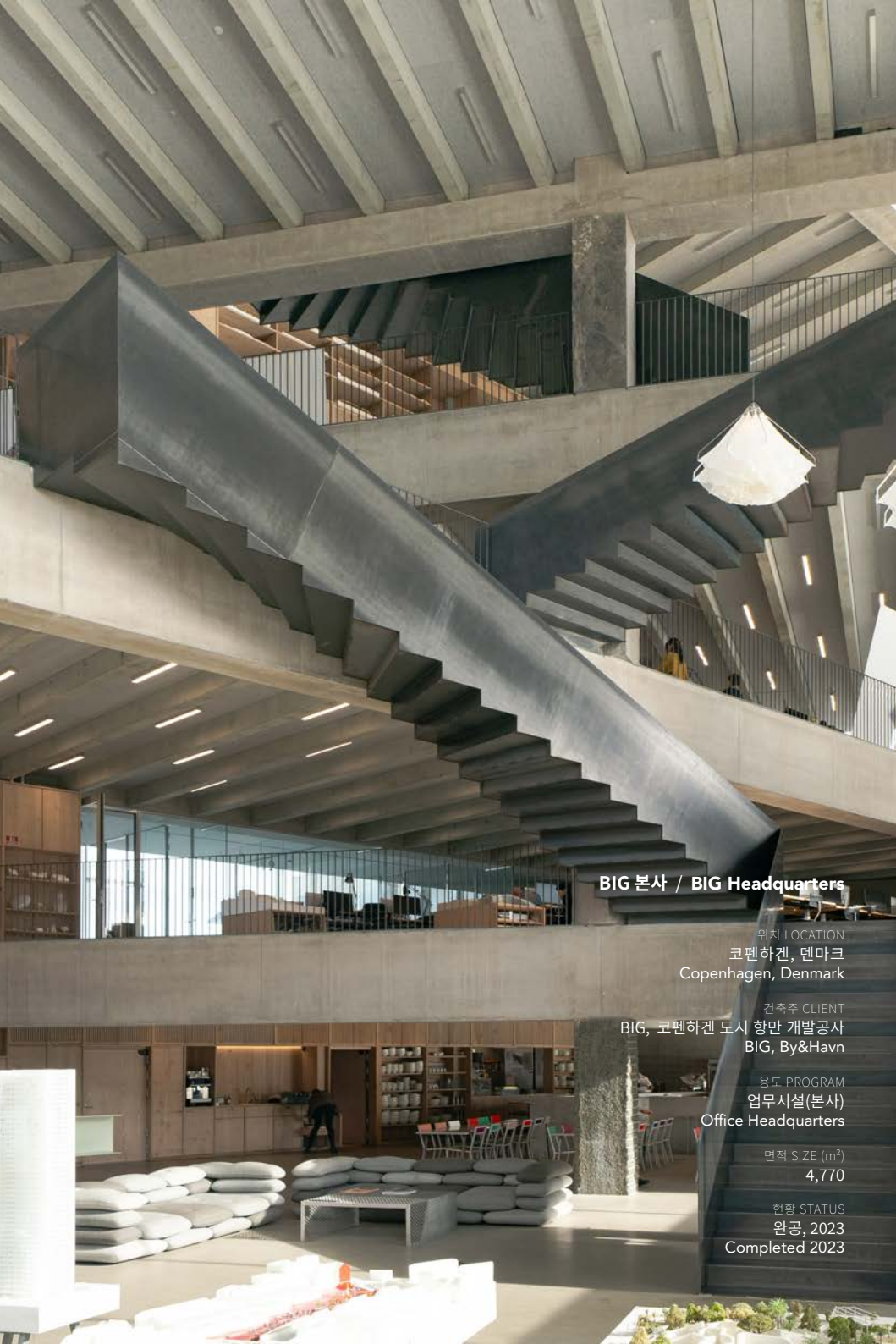
이처럼 돌은 구조적 필연성에서 장식적 우아함으로, 그리고 다시 지속 가능하고 문화적으로 깊이 있는 재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고대와 아방가르드를, 지구적 맥락과 우주적 가능성을 잇는 매개체로서 새롭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 STONE

Stone—the cradle of architecture. From prehistoric monuments like Göbekli Tepe and Stonehenge to iconic structures such as Petra, the Acropolis, and Sagrada Família, stone embodies permanence and historical significance. Originally structural, as in Greek temples translating timber techniques into stone, it later became decorative, exemplified by Mies van der Rohe's elegant cladding.

Stone's versatility is further explored in contemporary designs like **BIG's Copenhagen headquarters**, where its durability and aesthetic solidity anchor the building amidst an industrial landscape.
Similarly, the **NASA lunar habitat**, leveraging lunar regolith—moon dust — demonstrates its futuristic potential for stability and self-sufficiency in extreme environments.

Thus, stone transitions from structural necessity to ornamental elegance, now reborn as a sustainable, culturally profound material bridging the ancient with the avant-garde, the terrestrial with the cosmic.



## BIG 본사 / BIG Headquarters

위치 LOCATION
코펜하겐, 덴마크
Copenhagen, Denmark

건축주 CLIENT
BIG, 코펜하겐 도시 항만 개발공사
BIG, By&Havn

용도 PROGRAM
업무시설(본사)
Office Headquarters

면적 SIZE ($m^2$)
4,770

현황 STATUS
완공, 2023
Completed 2023

# 흙

흙은 평범하면서도 기적적인 존재로, 시적인 속삭임처럼 건축의 서사를 빚어냅니다. 점토와 토양, 벽돌은 소박한 기원에서 출발하지만 그 한계를 넘어섭니다. 가우디의 유려한 카탈루냐 볼트에서 보듯, 점토 아치는 머리 위에서 유기적으로 흐르며 공간을 형성합니다. 모듈화된 벽돌은 반복 속에서도 유연함을 지니며, 전통과 혁신의 이야기를 담아 일상의 재료를 비범한 표현으로 승화시킵니다.

**도하 엑스포의 UAE 파빌리온**에서는 서로 얽히는 다짐 흙벽이 강인한 가프(Ghaf) 나무를 연상시키며, 흙이 상상력을 통해 재탄생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호텔 Ø4**에서는 벽돌 파사드가 퇴적층처럼 쌓이며 항구의 경계에 촉각적 기억을 더합니다.

광물성과 유기성을 동시에 지닌 이 원초적 재료들은 잊혀진 지혜를 오늘의 열망에 맞게 다시 빚어냅니다. 건축의 미래를 향한 여정은 흙의 깊은 유산을 되짚으며, 오래된 방식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우리 발아래의 대지는 더 이상 단순한 기초가 아니라, 건축을 함께 완성하는 캔버스이자 협력자가 됩니다.

# EARTH

Earth, mundane yet miraculous, shapes architectural narratives in poetic whispers. Clay, soil, and brick—simple materials that transcend humble origins. Consider Gaudí's sinuous Catalan vaults, where clay arches dance gracefully overhead. Brick, modular yet fluid, tells stories of tradition and innovation, elevating ordinary repetition into extraordinary expression.

The UAE Pavilion at Expo Doha features intertwining rammed earth walls echoing the resilient Ghaf Tree—earth transformed through imagination.
At **Hotel Ø4**, brick façades rise like sedimentary stories, layering the harbor's edge with a tactile memory of earth.

These elemental materials, part mineral, part organic, echo forgotten wisdom reshaped for modern aspirations. Architecture's journey forward revisits earth's rich heritage, finding novelty in ancient methods. The ground beneath us becomes not just foundation, but canvas and collaborator.



**아랍에미레이트 파빌리온 - 도하 엑스포**
**UAE Pavilion - EXPO Doha**

위치 LOCATION
도하, 카타르
Doha, Qatar

건축주 CLIENT
아랍에미레이트 대사관
UAE Ministry

용도 PROGRAM
파빌리온, 전시
Pavilion, Exhibition

면적 SIZE ($m^2$)
450

현황 STATUS
완공, 2023
Completed 2023

#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건축의 역설입니다. 환경에 해로운 재료로 비판받으면서도, 현대 세계의 구조적 기반으로서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로마 시대에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 근대에 이르러 르 코르뷔지에의 혁신적 이상을 통해 새로운 건축 언어를 정의했지만, 한편으로는 획일적인 도시 확산의 상징으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슈타이너의 괴테아눔, 코르뷔지에의 롱샹 성당, 안도의 정밀하면서도 시적인 공간을 직접 경험하며, 콘크리트가 지닌 유동성, 촉각성, 그리고 표현적 잠재력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콘크리트는 혁신과 새로운 환경적 요구 속에서 다시금 건축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엘 코스미코 프로젝트**와 같이 로보틱 3D 프린팅으로 구현된 주거는 사막 풍경과 어우러지는 곡선형 구조를 형성하며, 조형적 가능성과 시공 과정에서의 폐기물 저감 효과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코펜하겐 동물원의 **판다 하우스**에서는 음양에서 영감을 받은 서식지를 구현하기 위해 콘크리트가 사용되며, 자연주의적 디자인과 구조적 기능을 통합합니다.

한때 배제되거나 과소평가되었던 이 재료는 이제 예술성과 환경적 책임, 그리고 구조적 창의성이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추상적 개념을 물질적 형태로 구현해내는 지속적인 능력을 통해, 고정된 영속성의 상징에서 역동적 혁신의 매개체로 그 유산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 CONCRETE

Concrete is architecture's paradox: both vilified as environmentally harmful and indispensable as the modern world's structural foundation. Initially popularized by the Romans, its modern role was defined by Le Corbusier's revolutionary ideals, later devolving into monotonous urban sprawl. However, personal encounters with Steiner's Goetheanum, Corbu's Ronchamp chapel, and Ando's precise yet poetic spaces revealed its hidden fluidity, tactility, and expressive potential.

Concrete now undergoes an architectural renaissance, driven by sustainability and innovation. Projects like **El Cosmico**'s, the robotic 3D-printed Sunday Homes form curvilinear structures blended with the desert landscape, showcasing its sculptural potential and reduced construction waste.
Copenhagen Zoo's **Panda House** employs concrete to form a yin-yang-inspired habitat, integrating naturalistic design with structural functionality.

This once-dismissed material today represents the creative intersection of art, sustainability, and structural ingenuity, emphasizing its enduring ability to materialize abstract ideas into tangible forms- reshaping its legacy from rigid permanence to dynamic innovation.



## 판다 하우스 / Panda House

위치 LOCATION
코펜하겐, 덴마크
Copenhagen, Denmark

건축주 CLIENT
코펜하겐 동물원
Copenhagen Zoo

용도 PROGRAM
동물원
Zoo

면적 SIZE $m^2$
2,450

현황 STATUS
완공, 2019
Completed 2019

# 금속

금속은 현대 문명을 떠받치는 기반입니다. 에너지 그리드와 교통 인프라, 그리고 건축은 모두 그 강도 위에 서 있습니다. 고대의 장신구에서 에펠탑, 미스 반 데어 로에의 S.R. 크라운 홀에 이르기까지, 금속은 보이지 않는 구조적 지지체에서 점차 스스로를 드러내는 표현적 외피로 진화해왔습니다. 브러시드, 산화, 아노다이징 등 다양한 마감은 알루미늄과 강철에 촉각적·시각적 깊이를 더합니다.

노르웨이 키스테포스 미술관의 **더 트위스트**는 강철 프레임 위에 알루미늄 클래딩을 적용하여 란셀바 강을 가로지르며 우아하게 비틀립니다.
**마스크 타워**의 풍화 강철 이중 나선 구조는 습지의 풍경을 반영하며, 노출된 금속을 조형적이고 반투명한 형태로 전환합니다.

오늘날 건축은 금속의 잠재력을 다시 탐색하고 있습니다. 금속은 건축, 물질성, 그리고 인간적 표현 사이의 지속적인 대화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 METAL

Metal underpins modern civilization—energy grids, transportation, and architecture all rest upon its strength. From ancient jewelry to Eiffel's tower and Mies van der Rohe's S.R. Crown Hall, metal transitioned from hidden support to expressive facade. Aluminium and steel, with finishes like brushed, oxidized, and anodized, invite tactile and visual exploration.

**The Twist** at Norway's Kistefos Museum employs aluminum cladding over a steel frame to twist elegantly across the Randselva River.
**Marsk Tower**'s weathered steel double-helix echoes the marshland, transforming exposed metal into a sculptural, translucent form.

Today's architecture rediscovers metal's potential, positioning as a protagonist in the ongoing dialogue between architecture, materiality, and human expression.



## 더 트위스트 (키스테포스 박물관)
## The Twist (Kistefos Museum)

위치 LOCATION
예브나케르, 노르웨이
Jevnaker, Norway

건축주 CLIENT
키스테포스 예브나케르 박물관
Kistefos Museum Jevnakar

용도 PROGRAM
기반시설, 전시
Infrastructure, Exhibition

면적 SIZE ($m^2$)
1,000

현황 STATUS
완공, 2019
Completed 2019

# 유리

모래에서 비롯된 유리는 풍부하면서도 다채로운 가능성을 지닌 재료로, 압축 상태에서는 강철보다 높은 강도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한때 베네치아가 독점하던 사치품이었던 유리는 오늘날 현대 건축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으며, 부재에서 존재로, 일상적인 재료에서 눈부신 형태로 끊임없이 변모해왔습니다.

**뮈제 아틀리에 오데마 피게 파빌리온**은 곡면 구조 유리 벽을 통해 건물을 지지하는 동시에 내부의 시계 제작 과정을 드러냅니다.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Google의 베이뷰**는 대형 유리 패널을 활용해 실내에 풍부한 자연광을 끌어들이고, 내부 공간과 주변 경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합니다.

유리는 혁신을 거듭하며, 갱신의 순환이라는 역사적 흐름을 이어갑니다. 건축적 맥락이든 기술적 맥락이든, 유리는 투명과 불투명, 부재와 존재 사이를 오가는 카멜레온과 같은 재료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끝없는 창조적 탐구를 반영합니다.

# GLASS

Glass, derived from sand, is a versatile, abundant material that can become stronger than steel when under compression. Once a luxury monopolized by Venice, it has since evolved into a fundamental element of modern architecture—masterfully shifting from absence to presence, from the mundane to dazzling forms.

The **Musée Atelier Audemars Piguet pavilion** features curved structural glass walls that support the building while revealing the watchmaking process inside.
**Google Bay View** in California utilizes expansive glass panels to flood interiors with natural light, connecting indoor spaces with the surrounding landscape.

Glass continuously cycles through innovation, echoing a historic loop of renewal. Whether architectural or technological, glass remains a chameleon-like material—transforming from transparent to opaque, absent to present—reflecting humanity's endless creative exploration.



## 뮤제 아틀리에 오데마 피게
## Musée Atelier Audemars Piguet

위치 LOCATION
르 브라수스, 스위스
Le Brassus, Switzerland

건축주 CLIENT
오데마 피게
Audemars Piguet

용도 PROGRAM
박물관, 전시, 갤러리
Museum, Exhibition, Gallery

면적 SIZE ($m^2$)
2,373

현황 STATUS
완공, 2020
Completed 2020

# 목재

목재는 건축의 가장 오래된 영감이자, 인류가 처음 의지한 보호막이며 가장 오랜 기술입니다.
한때 석재로 영속화되었던 목구조의 구축 논리는 오늘날 대형 집성 목재와 복합 목구조로 다시 등장하며, 더 가볍고 정교하며 환경적 책임을 고려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현대 기술은 목재에 내재된 오래된 지혜를 재해석하며, 로보틱 정밀성을 통해 사라졌던 장인성을 새롭게 구현합니다. 목재는 단순히 친환경적 재료를 넘어, 탄소 중립에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건축적 매개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 공항의 **스카이파크 비즈니스 센터**는 유럽 최대 규모의 목구조 건축물 중 하나로, 대형 건축에서 목재가 지닌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더 플러스**(The Plus) 공장은 교차 적층 목재(CLT)를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생산과 환경적 책임을 조화시키는 유연한 산업 공간을 구현합니다.

강렬한 색채로 마감된 스칸디나비아 주거에서부터 전통적 형태를 대담하게 추상화한 동시대 건축에 이르기까지, 목재는 끝없는 변주와 역설적 매력을 드러냅니다. 전 세계의 건축가들은 목재의 표현 가능성을 새롭게 탐구하며, 기념비성과 덧없음, 디지털 정밀성과 아날로그적 온기 사이의 경계를 흐립니다.
오늘날 건축은 목재를 급진적 혁신과 시대를 초월한 따뜻함이 만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일의 건축과 사유를 함께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 WOOD

Wood, architecture's original muse; our earliest shelter and oldest craft. Timber's tectonic logic, once immortalized in stone, now reemerges as mass timber composites; lighter, smarter, and greener. Modern technology reinvents wood's ancient wisdom, with robotic precision recreating lost craftsmanship. Timber isn't just eco-friendly, it is architecture's easiest shortcut to carbon neutrality.

The **Skypark Business Center** at Luxembourg Airport is one of Europe's largest timber buildings, highlighting wood's potential in sustainable, large-scale architecture.
**The Plus** factory showcases innovative use of cross-laminated timber to create sustainable, flexible industrial spaces that harmonize production with environmental stewardship.

From Scandinavian homes cloaked in vibrant pigments to contemporary designs boldly abstracting traditional forms, timber proves endlessly versatile and delightfully contradictory. Architects worldwide are reimagining timber's expressive possibilities, blurring lines between monumentality and ephemerality, digital precision and analog charm. Today, architecture rediscovers wood as a vital medium where radical innovation meets timeless warmth, crafting the building and ideas of tomorrow.



## 더 플러스 / The Plus

위치 LOCATION
마그노르, 노르웨이
Magnor, Norway

건축주 CLIENT
베스트레 A/S
Vestre A/S

용도 PROGRAM
기반시설
Infrastructure

면적 SIZE (m²)
7,000

현황 STATUS
완공, 2022
Completed 2022

# 직물

패브릭은 건축의 부드러운 혁명으로, 조형과 구조를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프라이 오토의 부유하는 캐노피에서부터 커튼, 카펫, 공기 주입식 구조가 만들어내는 실내 공간에 이르기까지, 패브릭은 강한 개입이 아닌 촉각적 유연성을 통해 공간을 재구성합니다. 드리워지고, 당겨지고, 팽창되며, 긴장과 부드러움으로 형태를 빚어내어 잠정적이면서도 시적인, 견고하면서도 덧없는 건축을 만들어냅니다.

**클라인 캐빈**은 모듈형 목구조와 선박용 등급의 캔버스 외피를 결합하여, 전통적인 A-프레임을 현대 노마드를 위한 유연하고 미니멀하며 오프그리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주거로 재정의합니다.
**디 오브**(The Orb)는 NASA 등급의 크로매틱 패브릭을 활용해 거대한 반사형 공기 주입식 구조를 구현함으로써, 섬유 재료가 환경과 공동체를 동시에 아우르는 대규모의 일시적 공간을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건축이 더욱 가볍고, 정교하며, 절제된 접근을 요구받는 오늘날, 이 겸손한 재료는 시급한 과제에 대한 우아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신속한 시공, 최소한의 개입, 최대의 효과, 그리고 즉각적인 가변성.
패브릭은 새로운 건축적 가능성을 여는 매개체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 FABRIC

Fabric, architecture's soft revolution, effortlessly bridging sculpture and structure. From the floating canopies of Frei Otto to interiors animated by curtains, carpets, and inflatables, fabric reshapes spaces through tactile flexibility rather than forceful imposition. Draped, stretched, or inflated, fabric conjures form from tension and softness, creating architecture that feels provisional yet poetic, substantial yet impermanent.

The **Klein Cabin** innovatively combines modular timber construction with a marine-grade canvas exterior to create a flexible minimalist, and off-grid-ready dwelling that redefines the traditional A-frame for modern nomads worldwide.
**The Orb** uses NASA-grade chromatic fabric to create a monumental, reflective inflatable structure, showcasing the power of textiles in shaping large-scale, ephemeral spaces that engage both environment and community.

As architecture confronts the need for lighter, smarter, and gentler approaches, this humble material offers elegant solutions to pressing architectural challenges: rapid construction, minimal intervention, maximum impact, and instant adaptability.

## 디 오브 / The Orb

위치 LOCATION
네바다주, 미국
Nevada, USA

건축주 CLIENT
-

용도 PROGRAM
설치작품
Installation

면적 SIZE (m²)
-

현황 STATUS
완공, 2018
Completed 2018



# 플라스틱

플라스틱은 건축의 '앙팡 테리블(enfant terrible)'이라 불릴 만한 존재입니다. 한때는 공기보다 가벼운 주거와 행성 간 삶을 꿈꾸는 팽창식 구조를 약속하며 미래의 상징으로 찬양받았지만, 오늘날에는 일회용 문화의 대명사로서 바다와 해변, 나아가 우리의 삶 깊숙이까지 오염시키는 재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명은 재료 자체라기보다 인간의 무분별한 사용 방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큽니다. 신중하게 설계될 때 플라스틱은 환경적 재앙이 아닌, 아이코닉한 지속성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세대를 넘어 사용되는 레고 블록은 미학적 지속성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BIG의 2016년 **서펜타인 파빌리온**은 전통적인 벽의 개념을 역동적이고 변화하는 공간으로 전환하며, 구조와 재료의 경계를 흐립니다.
**허니콤 레지던스**는 투명 아크릴을 선큰 풀에 적용하여 건축과 자연 환경을 매끄럽게 통합합니다.

플라스틱은 기밀 멤브레인, 공기 주입식 구조, 중력을 거스르는 시스템의 보이지 않는 주역이기도 합니다. 그 가능성은 유연하고 생동감 있으며, 예상보다 견고합니다. 건축이 플라스틱의 기적성과 문제성을 동시에 직시하는 과정 속에서, 이 재료는 여전히 잠재력으로 가득한 매체로 다시 읽히고 있습니다.

# PLASTIC

Plastic, le infant terrible of architecture. Once heralded as the future, promising habitats lighter than air and inflatable dreams of interplanetary life, plastic is now the poster child of disposable culture, polluting oceans, beaches, and bellies alike. However, its infamous reputation arises less from the material itself but rather from the reckless application by humans. Designed thoughtfully, plastic yields iconic permanence rather than ecological nightmare. For example, LEGO bricks remain timeless across generations, a testament to aesthetic sustainability.

BIG's 2016 **Serpentine Pavilion** transforms the concept of a traditional wall into a dynamic, shifting space that blurs the lines between structure and material.
The **Honeycomb Residence** uses transparent acrylic for its sunken pools, seamlessly integrates architecture with the natural surroundings.

It's the invisible hero behind airtight membranes, inflatables, and structures defying gravity. Plastic continually proves itself versatile, vibrant, and surprisingly durable. As architecture reconciles with plastic's dual nature of being simultaneously miraculous and problematic, it discovers a material still rich in potential.



## 서펜타인 파빌리온 / Serpentine Pavilion

위치 LOCATION
런던, 영국
London, England

건축주 CLIENT
서펜타인 갤러리
Serpentine Galleries

용도 PROGRAM
파빌리온
Pavilion

면적 SIZE ($m^2$)
300

현황 STATUS
완공, 2016
Completed 2016

# 식물

모든 문명은 야생과 질서가 균형을 이루는 신성한 정원, 하나의 오아시스를 그려왔습니다. 건축이 물리적 보호막을 만든다면, 조경 건축은 세심하게 조직된 형태 안에서 자연의 야생성을 다시 불러옵니다. 리우데자네이루의 시치우 호베르투 부를레 마르크스(Sítio Roberto Burle Marx)와 뉴욕의 하이라인(High Line)은 도시에서 가장 급진적인 변화가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Ø4 어반 라이프 헛**(Ø4 Urban life huts)는 식물 기반 재료의 활용을 통해 도시 생활과 자연을 다시 연결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나는 MSHRM** 프로젝트는 균사체를 3D 프린팅 구조에 통합하여, 바이오 기반 재료가 모듈형 건축에서 탄소 영향과 공간적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오늘날 수직 숲, 바이오엔지니어링, 균사체 구조와 같은 동시대 실천은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방법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때 인간이 자연을 길들인 증거로 여겨졌던 도시는 이제 자연에 의해 다시 점유되고 있습니다.

'도로포장 아래에는 식물이 있습니다.'

# PLANT

All civilizations have an image of a sacred garden, an oasis balancing wilderness and order. Architecture creates physical shelter while landscape architecture reintroduces the wild in carefully orchestrated forms.  Both the Sítio Roberto Burle Marx in Rio de Janeiro and the High Line in New York City illustrate how the most radical changes in a city are grown rather than built.

**Ø4 Urban life huts** highlights the use of plant-based materials, creating a sustainable environment that reconnects urban life with nature.
**I AM MSHRM** integrates mycelium into 3D-printed structures, showcasing how bio-based materials can be used to reduce carbon impact and spatial waste in sustainable, modular construction.

Today, contemporary practices such as vertical forests, bioengineering, and mycelium structures, reveal an ever-widening array of ways to adapt the world to an ever-changing climate. Cities, once an example of man's ability to tame nature, are now being reclaimed by it.

'Sous les pavés, les plantes.'



## 나는 MSHRM / I AM MSHRM

위치 LOCATION
코펜하겐, 덴마크
Copenhagen, Denmark

건축주 CLIENT
AM 허브
AM Hub

용도 PROGRAM
파빌리온
Pavilion

면적 SIZE ($m^2$)
6

현황 STATUS
완공, 2023
Completed 2023

# 재활용 재료

리사이클레이트(recyclate)는 재활용 과정을 통해 다시 태어난 재료를 의미합니다. 인류의 활동이 지각 변동이나 화산 활동보다 더 강하게 지질을 재편하는 인류세의 시대에, 미래의 자원이 우리의 건설된 과거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윌리엄 맥도너는『Cradle to Cradle』에서 재-자원(re-sources)이란 인간이 만든 환경의 과거로부터, 해체된 구조물과 제품에서 다시 채굴해내는 재료라고 설명합니다. 이 관점은 철거 대신 재해석, 해체, 재구성을 제안합니다. 기존의 것을 새롭게 조합함으로써 보다 진정성 있는 미학이 탄생합니다. 우리가 철거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단지 자재만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시간을 함께 이어받습니다. 사용의 흔적이 남긴 파티나, 효율을 기준으로 계산되지 않았던 비정형적 비례, 그리고 여유로운 공간의 관대함까지도 함께 계승됩니다.

**덴마크 해양박물관**에서는 '부재'가 '존재'로 전환되었습니다.
**어반 리거**(Urban Rigger)에서는 버려진 선적 컨테이너가 부유하는 모듈형 주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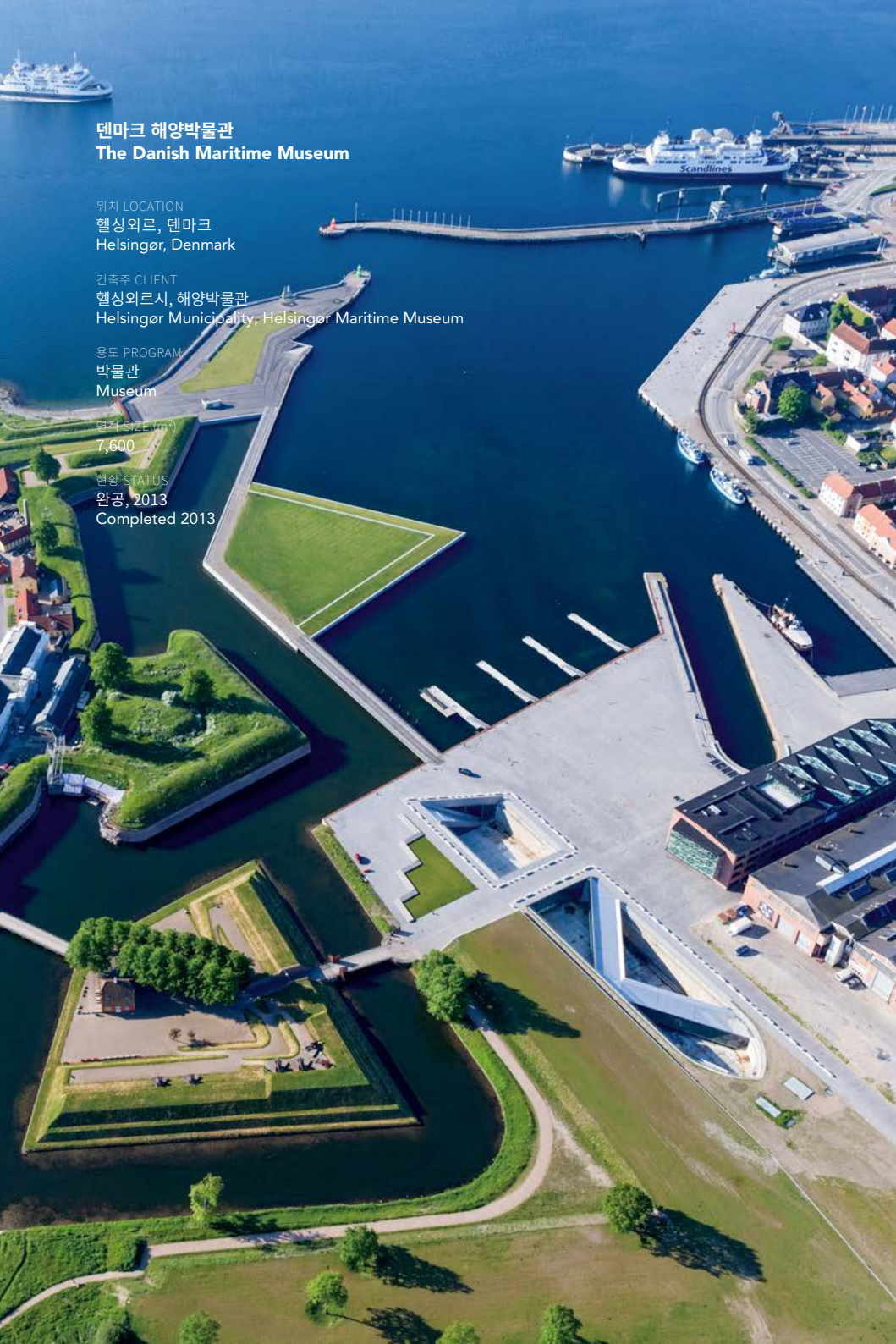
미래의 재료는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 RECYLATE

Recyclate is the material that results from processes of recycling. In the Anthropocene, where human impact reshapes geology more than tectonic shifts or volcanic eruptions, it is only logical that our future resources will come from our built past. In his book "Cradle to Cradle," William Mcdonough posits that re-sources are the materials we mine from decommissioned structures and products from the distant past of manmade environments. Rather than demolish, this idea calls for reinterpretation, disassembly, and re-composition of the existing which will yield more authentic aesthetics. When we choose not to demolish, we inherit not just materials, but a lived history; The patina of use, the awkward proportions, the generosity of what was never calculated for efficiency.

At the **Danish Maritime Museum**, absence became presence.
With **Urban Rigger**, discarded shipping containers were reborn as buoyant modular housing.

The materials of the future are already here; we're simply using it for something else.




## 덴마크 해양박물관
## The Danish Maritime Museum

위치 LOCATION
헬싱외르, 덴마크
Helsingør, Denmark

건축주 CLIENT
헬싱외르시, 해양박물관
Helsingør Municipality, Helsingør Maritime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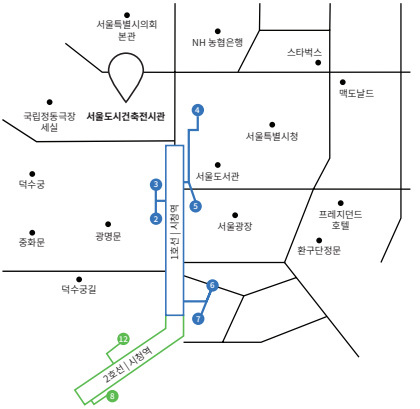
용도 PROGRAM
박물관
Museum

면적 SIZE (m²)
7,600

현황 STATUS
완공, 2013
Completed 2013

SEOUL HALL OF
URBANISM & ARCHITECTURE
서울도시건축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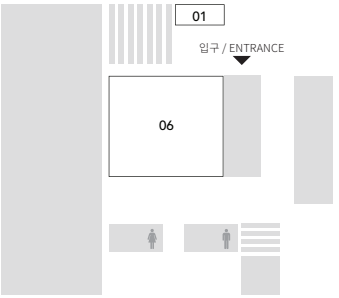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9
119, Sejong-daero, Jung-gu, Seoul




개방 시간 10:00 - 18:00 (17:30 입장 마감)
화 - 일 (월 휴관) Tuesday to Sunday (Closed Monda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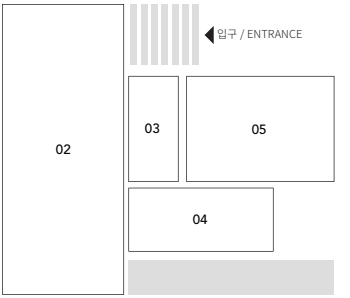
## 전시구성 | Key Map

### B2 | 지하 2층




01 BIG, 전시 소개
02 머티리얼 포디움
03 머티리얼 스툴
04 10가지 재료에 대한 10가지 생각
05 프로세스 룸
06 라운지

### B3 | 지하 3층




01 BIG Introduction, Exhibition Preface
02 Material Podiums
03 Material Stools
04 10 Editorials about 10 Materials
05 Process Room
06 Lounge

주최 | Organizer

서울특별시

주관 | Producers

BIG Maker Wayd

후원 | Sponsors

EMBASSY OF DENMARK Seoul
Artemide
BoConcept
DYM ADVANCED FACADE SOLUTIONS
FRITZ HANSEN
NorthGlass
SPTL
TEVA CONCRETE

# 머티리얼리즘

서울도시건축전시관 2026.11.07 - 2027.02.28

| | |
|---|---|
| 주최 | 서울특별시 |
| 주관 | BIG, (주)메이커피앤에스, (주)웨이드 |
| 책임파트너 | 비야케 잉겔스, 브라이언 양 |
| 프로듀서 총괄 | 박영규(웨이드), 전평재(메이커피앤에스) |
| 프로젝트 총괄 | 이진호 |
| 디자인 총괄 | 조용원 |
| 프로젝트 팀 | 야콥 랑에, 백승재, 하현우, 송서현, 다그마라 A. 무지크, 빈센트 헤이넌, 뮤리엘 아비 무사, 부스터 크리스텐센, 카를로스 라모스 테노리오, 이효진, 하이메 산체스 로사노, 장 케코아 샤를로, 김지은, 마테오 바자리아리니, 밀레나 이보바 샤르코바, 파울라 돔카, 폴 마르크, 리타 페르난데스, 한륜구, 추성일 |
| 커뮤니케이션 | 알리사 스나이더, 아말리에 프루에가르 룬, 한희주 |
| 그래픽 디자인 | 조용원, 백승재, 빈센트 헤이넌 |

# Materialism

Seoul Hall of Urbanism & Architecture

| | |
|---|---|
| Organizer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 Producers | BIG, MakerP&S, WAYD |
| Partners in Charge | Bjarke Ingels, Brian Yang |
| Executive Producers | Youngkyu Park(WAYD), Pyeongjae Jeon(MakersP&S) |
| Project Manager | Jinho Lee |
| Design Leader | Yongwon Jo |
| Project Team | Jakob Lange, Seung Jae Baek, Hyunwoo Ha, Seohyeon Song, Dagmara A. Muzyk, Vincent Heijnen, Muriel Abi Moussa, Buster Christensen, Carlos Ramos Tenorio, Hyojin Lee, Jaime Sanchez Lozano, Jean Kekoa Charlot, Jieun Kim, Matteo Baggiarini, Milena Ivova Sharkova, Paula Domka, Pol Marck, Rita Fernandes, Ryun Gu Han, Seongil Choo |
| Communication | Alyssa Snyder, Amalie Fruergaard Lund, Sarah Hahn |
| Graphic Design | Yongwon Jo, Seungjae Baek, Vincent Heijnen |



© Yongwon Jo